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헝가래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헝가래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사람의 몸을 번쩍 들어 자꾸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는 일. 또는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는 일. 기쁘고 좋은 일이...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현재
허영가리	-	-	-	-
헝가리	-	-	-	-
헝가리	-	-	-	-
헝가래	-	-	-	-
헤엄가리	-	-	-	-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사람의 몸을 번쩍 들어 자꾸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는 일. 또는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는 일.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을 축하하거나, 잘못이 있는 사람을 벌줄 때 한다.

🕒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 수록 용례

11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5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헝가래'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번쩍 들어 자꾸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는 일. 또는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는 일.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을 축하하거나, 잘못이 있는 사람을 벌줄 때 한다.



헝가래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헝가래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헝가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헝가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헝가래 사전 표기 요약	—	—	—	—	—	●→
헤엄가리 사전 표기 요약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허영가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헤영가리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허영가리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에영가리 문헌 수록 표기시기 미상 기록도 있음	—	—	—	—	—	—

표기·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해엄가래 문헌 수록 표기	—	—	—	—	—	●→
헝가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헝가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5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험가리
20세기
- 헝가리
20세기
- 헝가래
20세기현재
- 해엄가리
미상
- 허영가리
19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1종

허영가리, 헝가리, 험가리, 해엄가래, 힝가리, 헝가래, 헝가래, 해엄가리, 해영가리, 허영가리, 에영가리

헝가래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헿가래’의 옛말인 ‘헤엄가리’는 1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문헌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헤엄가리’는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해 팔다리나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일을 뜻하는 ‘헤엄’과 흙을 파헤치거나 떼서 던지는 기구를 뜻하는 ‘가리’가 결합한 것이다.

↘ 표기와 소리의 특징

‘헤엄가리’의 ‘헤엄’이 ‘헴’으로 축약되어 20세기에 ‘헴가리’가 나타나고, ‘헴가리’의 제1음절 종성 ‘ㅁ’이 제2음절 초성 ‘ㄱ’을 닮아 ‘ㅇ’으로 변하여 ‘헿가리’가 나타난다. 19세기 및 19세기로 추정되는 문헌에서는 ‘허영가리’, ‘헤영가리’, ‘허영가리’, ‘에영가리’ 등의 표기도 나타난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이후 ‘ㅇ’이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ㅏ’도 ‘ㅑ’로 변하면서 ‘헿가래’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헿가래

전체 용례 11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허영가리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허영가리

📖 출처 1865 흥부전 단:18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일변 놀부를 수족을 쓰며 허영가리를 치니.

📖 현대어 풀이

일변 놀부를 사족을 들어 올려 헿가래를 치니.

20세기 헝가리, 험가리, 헤염가레 외 3종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헝가리, 험가리, 헤염가레, 힝가리, 행가레, 행가래

📖 출처 1914 금강문 100

용례 02

66 문헌 용례

조년의 계집이 붓잡아서 헝가리 치주….

📖 현대어 풀이

조년의 계집애 붙잡아서 헝가래 치자….

📖 출처 1917 한문수호지어록언해 61

용례 03

66 문헌 용례

橫拖倒拽 험가리 치다.

📖 현대어 풀이

헝가래 치다.

📖 출처 1917 한문수호지어록언해 91

용례 04

66 문헌 용례

絀扒 헤염가레.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0 동아일보 5월 31일 3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일제히 일등 상품을 밧어 들고 나오는 세 사람의 선수에게 달녀드러 「힝가리」를 치며.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7 조선일보 8월 9일 3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옛차 행가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동아일보 12월 23일 4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장정 몇은 내게로 달려들어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행가래를 치기도 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상 해엄가리, 헤영가리, 혀영가리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해엄가리, 헤영가리, 혀영가리, 예영가리

출처 미상 서유기 연세대 소장본 4:99

용례 08

66 문헌 용례

네 굽을 잡아 해엄가리 쳐서.

현대어 풀이

네 굽을 잡아 행가래 쳐서.

출처 미상 수호지어록해 국립중앙도서관 10

용례 09

66 문헌 용례

橫拖倒拽 헤영가리 치다.

현대어 풀이

행가래 치다.

66 문헌 용례

絣扒 허영가리.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橫拖倒拽 에영가리 치다.

ㄱ 現代어 풀이

헝가래 치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헝가래에 관한 주석

‘헝가래’의 어원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관형사 ‘헨’과 농기구를 뜻하는 ‘가래’가 결합하여 ‘헨가래’가 된 후 ‘헨가래’를 거쳐 ‘헝가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가래질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가래질을 하기에 앞서 허공에 대고 빈 가래로 호흡을 맞추어 보는 것을 ‘헨 가래’라고 했고, 이것이 사람의 손발을 잡고 흔드는 모습과 유사하여 이러한 행위를 ‘헝가래’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헝가래’가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을 뜻하는 접두사 ‘헛-’과 농기구를 뜻하는 ‘가래’가 결합한 ‘헛가래’로부터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헛가래’ 역시 연습 삼아 허공에 대고 빈 가래로 호흡을 맞추어 보는 것을 의미하며 ‘헛가래’의 발음이 변하여 ‘헝가래’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헨가래’ 유래설과 ‘헛가래’ 유래설은 ‘헝가래’의 옛말이 ‘헤엄가리’인 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헨’과 ‘헛’이 ‘헝’으로 바뀌는 발음의 변화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큰사전》(1957)에서는 ‘헝가래’를 ‘뜻 밖에 기쁘고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을 치하하는 뜻으로, 또는 여러 충충에서 과실(過失)이 있는 사람을 벌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그의 네 활개를 번쩍 들어 잇대어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는 짓’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헝가래’는 원래 사람의 팔다리를 번쩍 들어 크게 앞뒤로 흔드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뒤로 흔드는 행위가 가래질의 동작과 같고, 사람이 팔다리를 붙잡힌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헤엄을 치는 것과 같으므로 이를 ‘헤엄가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후에 사람을 위로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까지도 ‘헝가래’라고 표현하면서 ‘헝가래’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헝가래 관련 낱말

헤엄, 가래



- 헤엄명사사람이나 물고기 등이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해 팔다리나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일.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기](#)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헝가래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조항범 2013 헝가래의 어원과 의미에 대하여 《국어학》 68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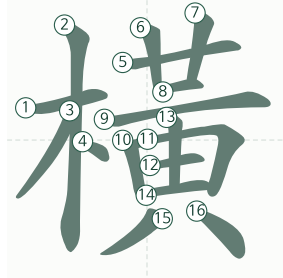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헝가래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橫

뜻·음 가로 횡
총 16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橫/

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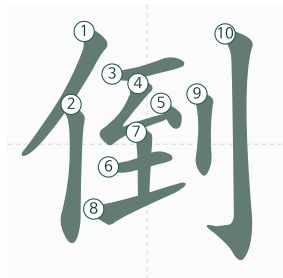
뜻·음 끌 타
총 8획 · 부수 手



hanja.wordrow.kr/한자/拖/

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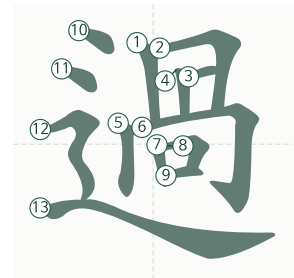
뜻·음 넘어질 도
총 10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倒/

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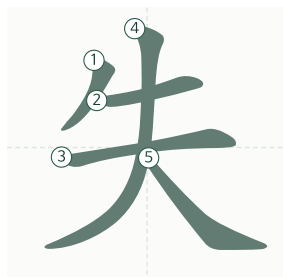
뜻·음 지날 과
총 13획 · 부수 辵



hanja.wordrow.kr/한자/過/

失

뜻·음 잃을 실
총 5획 · 부수 大



hanja.wordrow.kr/한자/失/